# GIST 물리·광과학과 이상윤 교수, ‘퀀텀 코리아 2024’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

- 6월 25일(화) 열린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에서 수상

▲ GIST 물리·광과학과 이상윤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6월 25일(화) ‘퀀텀 코리아 2024’ 개막식에서 물리·광과학과 이상윤 교수가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 발전 및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탁월한 연구실적과 국내 학술교류, 인력양성 등 양자과학기술 분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양자과학기술 발전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 GIST에 부임한 이 교수는 **2011년부터 다이아몬드, 실리콘 카바이드의 고체 점결함을 이용한 스핀 큐비트 구현, 스핀-광자 인터페이스 연구**를 진행하여 **38편의 연구논문을 ‘Nature Nanotechnology’, ‘Nature Materials’ 등 주요 저널에 발표**해 왔으며, 현재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사업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인 ‘퀀텀 코리아 2024’는 과기정통부와 퀀텀 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재완 교수)가 공동주최하며 국내외 양자 산학연 전문가, 학생, 일반 국민 등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5일(화) 개막식 행사를 시작으로 3일간 개최된다.